

15. 제자도 2—부활과 살아내기

I. 부활의 의미 (9:2-13)

막 9:9

- ◆ 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**살아나지 않는 한**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(AWP)
- ◆ 살아날 때까지는(개역, 표준새번역); “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”(공동번역); till/until (KJV, RSV, NIV); except when (YLT)

경계하다:

- διατείλατο (5:43; 7:36*; 9:9) => 비밀? (오히려, 위험성을 알려줌=> 폭로, 그런 의미에서 경계/명령)
- διατέλλετο (8:15)=> imperfect (바리새인들의 누룩/가르침을 늘 경계시킴)
- “살아날 때까지는”=> Q: 그럼 그 동안은? 혹은 [기존의 이해대로, 육체적으로] 살아나지 못하면? 뺨이고 뺨이나? “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예수의 진정한 identity 가 없다”(Boring, 270)=>이것이 메시아 비밀이라고라? [지난 100 년간의 학문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]
- **살아나지 않는 한**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
 - 너희 안에 예수의 신학을 온전히 되살리지 못하는 한(=> 6:14), 예수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
 - 산 위에서 무엇을 경험했던 간에—영적 체험, 그것은 핵심이 아님. 예수의 신학으로 재해석되어야
 -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빠진—양꼬 없는—종교[개독교]가 되었다.
-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(9:10)=> 죽지 않는 신학, 사람을 살리는 신학 [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문제]=> 그 신학이 다시 살아남은 우리들의 문제
- 결론적으로, 메시아 **비밀**이 아니라 **신학의 차이** => 어떤 메시아(그리스도)? (cf. 막 12:35)

II. 병어리가 말을 하다 (9:14-29)

- 들어가면서.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(막 9:16). 여기서 “너희”는? “저희”는?
 - YLT And he questioned the scribes, "What dispute ye with them?"
 - NKJ And He asked the scribes, "What are you discussing with them?"
 - KKJ 그때 주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"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?"고 하시니
 - RSV And he asked them, "What are you discussing with them?"
 - BFC Jésus demanda à ses disciples: «De quoi discutez-vous avec eux?»

상황설명

- 예수는 제자들에게 오고, 제자들 주위에, 제자들과 더불어... (9:14)—예수의 관심은 제자들
-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(9:19) => 제자들에게 한 말
 - 변론의 토픽은? (literary context=> 부활)
 - 왜 서기관들을 이기지 못할까? 그들(서기관들/지배이데올로기)의 언어/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=> 신학다시하기의 필요성
 - 유구무언 (제자들에게 물어보나, 군중들이 답함). 제자들 모습=> 병어리 신앙
-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? 어릴 때부터니이다. => 상황이 이렇게 한가한가? 그럼 그 의미는? 모태신앙 (“못해”신앙?=>믿는 자에게는 **모든 것이 가능하니라**)
- 기도 외에는... => 기도는 내 생각을 하느님 생각에 맞추는 작업 (Q. 하느님 생각? => 예수의 생각 => 마가복음의 생각. The gospel of Jesus Christ << the Gospel of God). Cf. 기도와 금식 (//마 17:21* 없음)

복습. “섬기는 자” (막 9:35). Q. 누가 크냐? 그 이면에 추구하는 바는? => 권위/힘/돈을 통한 “행복”

- 막 10:45. 많은 사람이 추구/바라는 것—그러나 얻지 못하는 것 (권위/힘/돈), 그것을 대신/대체하는 것(또 다른 행복에 이르는 길)을 예수가 줌.
- 지난 주 한국 상황—두 지도자 비교 (두 개의 이데올로기 대립)

REFLECTIONS:

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(막 9:40).

1. 나는 병어리인가/병어리였는가? 어떤 면/의미에서?
2. “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”(막 9:40). 이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?

ⁱ “살아날 때까지는”=> 본문은 가정문 형식을 갖는다. (막 9:9, εἰ μὴ ὅταν; 마 17:9, ἕως οὗ)